

황룡강 노란꽃잔치 올한 '더 화려하게, 더 스케일있게'

핑크몰리·코키아 등 형형색색 꽃 심어 관람객 유혹
황룡강변에 텃밭 조성해 채소 수확 이벤트도 개최
경제 파급 효과 265억원...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봄에 열리는 '홍길동 축제'에도 꽃축제 도입키로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이하 노란꽃잔치)가 올해도 성장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장성군은 전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우수사례로 인정 받은 노란꽃잔치를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기획을 다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대표 축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엘로우시티 성공신화 있는 다=장성군은 노란꽃잔치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분주하다. 축제 주무 부서인 엘로우시티 프로젝트팀을 중심으로 성공 요인과 아쉬웠던 점을 집중 분석하는 등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여념이 없다.

군은 올해 축제의 키워드를 '더 화려하게, 더 스케일 있게'로 정하고 보다 화려하고 다양한 꽃을 심어 관람객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축제의 메인 꽃은 황화코스모스와 백일홍이었다. 장성군은 관람객들에게 화제를 모은 이들 꽃 외에도 색다른 식물을 심어 축제장의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준비하고 있는 식물은 가을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핑크몰리와 코키아다. 서양 억새로 불리는 분홍색의 핑크몰리는 특유의 몽환적인 아름다움으로 인해 최근 국민 식물로 급부상했다. 동화 속에서나 봄직한 컬러풀한 자태로 '사진밭'이 잘 받는 식물로도 유명하다.

땀싸리로도 불리는 코키아는 과거 빗자루를 만들던 식물로 연꽃빛이 가을에 익어가며 붉게 물드는 식물이다. 단풍보다 붉은 자태로 인해 가을에 많은 사랑을 받는다.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다는 뜻에서 '버닝 부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군은 드넓은 황룡강변에 핑크몰리와 코키아를 심으면 형형색색의 꽃과 어울려 황룡강변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백일홍에도 변화를 시도한다. 형형색색의 백일홍을 섞어 심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일부 정원엔 색깔별로 백일홍을 심어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게 축제장을 연출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황룡강변에 텃밭을 가꾸는 이색적인 시도도 한다. 장성군은 무와 배추 등 밭작물을 가꾸는 텃밭을 황룡강변 곳곳에 조성해 축제장에 온 관람객들이 채소를 수확해갈 수 있는 이벤트 등을 열 예정이다.



장성군은 올해 노란꽃잔치의 기획을 다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황룡강변 일대에서 펼쳐진 노란꽃잔치 축제. <장성군 제공>

활성화에 효과를 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신대 산학협력단의 조사에 따르면 노란꽃잔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총 265억5500여만원의 직접 경제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기간 누적관광객 98만7540명이 왔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객 중 87%인 85만8986명이 외부 관광객(외국인 관광객 포함)이고 13%인 12만8354명은 지역민이었다. 지역민 방문객이 장성 인구(약 4만7000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이유는 반복 관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외부 관광객은 교통비와 숙박비, 식음료비, 유희비, 소풍비를 포함해 1인당 총 2만7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성군민의 경우 이보다 적은 2만2300원이었다.

군은 올해 노란꽃잔치에서 체감 경제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군은 축제 관람 요금제나 주차장 이용 요금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실행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군은 이밖에 관람객들의 방문이 폭주해 교통 혼란이 원활하지 않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일부 관람객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올해는 축제가 더욱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군 관계자는 "노란꽃잔치가 광주-장성 간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을 정도로 관람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켜 관광도시로서의 장성군의 이미지를 전국에 각인했다"면서 "지난 축제의 장점은 살리고 아쉬운 점은 개선해 올해 축제에선 지난해보다 더 큰 기적을 일구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색채도시 마케팅 성공 뿌듯 주민 소득창출로 꽃피울 것”

유두석 장성 군수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도시를 특징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전한 도시라도 개성이 없으면 관광객들을 모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지자체 최초의 색채도시 마케팅인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장성군은 노란색의 도시’라는 생각을 전국에 심어 우리 지역을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만들어 주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12일 지난해 ‘엘로우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해 치른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1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모았고 장성군을 관광도시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군수는 “올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노란꽃잔치’가 선정되며 관람객들의 눈높이가 한껏 높아졌다”며 “벌써부터 ‘노란꽃잔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건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꽃잔치의 성공에 대해 “황룡강을 축제장으로 택한 게 신의 한 수였다”면서 “갑초만 우거진 버려진 황룡강을 명품 생태하천으로 바꾼 뒤 강변에 각종 꽃을 대량으로 식재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끄는 전략이 주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노란꽃잔치는 단순한 보여주기

축제가 아니라면서 265억여원의 직접경제효과를 거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이 경제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군수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으로 노란꽃잔치만한 게 있었더라면 싶다”며 “장성군이 정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산 증거로서 노란꽃잔치는 앞으로도 우뚝 설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크지는 않지만 아쉬운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관람객들이 워낙 많이 몰리는 탓에 교통 정체 현상이 빚어졌고, 화장실이 부족해 일부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 것이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올해 축제는 일부 부족한 점을 모두 개선할 테니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구례, 그랜드 호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2
- 지리산온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단란주점/세미나실
- 케이블카 설치 최우선 지역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5억 가능
- 감정가 / 시세 - 25억
- 매매 - 20억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2월 중순 입주가능
- 시세 - 1억
- 매매 - 7200만원

주인직매 H.010-3605-5000